

尹 “北, 핵으로 얻을 것 없다는 확신 갖도록 한미일 공조”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 접견해 “한미일 3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일 3국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아이보시 대사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라며 “최근 한일관계 경색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일 양국간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될은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는만큼,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양국간 관계 개선에 대해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일견 보기에 풀리기 어려운 것 같은 문제도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국의 정치 지도자와 관료, 국민들이 강력한 힘으

로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른 문제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노동자 손해배상 문제,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 한일 양국간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외국 정상 두 번째로 통화한 바 있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 17일 예방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당선됐을 때 바로 우리 (기사다) 총리께서 축하 메시지도 보내 주시고 직접 전화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했다. 아이보시 대사에게는 “코로나 팬텀싱가”라고 묻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한일 현안에 대해



총리께서 많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양쪽 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에 “기사다 총리와 윤 당선인의 통화는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고, 저희로서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 변동에 관해 언급했다.

이날 접견에는 윤 당선인 측에서 박진·김석기·조태용 의원과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배석했다. 서선욱기자

“여가부, 관련부처 분산·포괄부처 검토”

“여가부 폐지, 여러 방안 놓고 검토 논의 단계”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부처로 분산할 것인지, 여성·아동·노인 포괄한 고령화 저출을 포괄하는 우리 미래와 사회적 약자를 아우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방안을 놓고 인수위 관련 분과들이 모여서 검토와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설명하면서 “검토가 끝나면 새로운 명칭이 확정될 예정인데 현재 보도되는 일부 새 명칭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한편 인수위 내부에서 거소아대 장벽을 넘

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선(先)조각 후(後)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선(先)조각하고 후(後)개편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장관 인선을 먼저하고 조직개편을 나중에 하겠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너무 앞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의 답변은 정부조직개편TF가 구성됐고 팀장도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관심이 많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수위 입장에선 많이 곤혹스럽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물에서 송충을 찾고 있는 형국이라는 속담으로 같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는 기초분과와 각 분과 협의로 운영하며 실무 작업단이 구성돼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가 내일까지 25개의 부처기관 1차 업무 보고를 마친 뒤, 현장 의견수렴·소통을 위한 간담회·현장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김태흠 “민주당尹겨냥 특검법 제출은 대선불복”

“당선 20일 된 차기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코미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법 제출은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인을 흠집내기 위한 특검안을 제출하는 것은 대선불복이자 막가파

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사실상의 여당”이라며 “국회 운영과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번 대장동특검에서 대

장동을 설계하고 계획한 실질적인 몸통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속 빼더니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윤 당선인을 엮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의도는 짐작하지만 당선 20일 된 차기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치졸하고 코미디 같은 행태이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문재인·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정치보복을 했기 때문에 상대의 정치보복도 인정하고 이를 방어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는 민주당이 여당이다. 대선이 끝나도 반성없는 구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감으로 국회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 이수진 의원은 최근 윤 당선인이 검사 제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추가조작, 특혜 제공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른바 윤 당선인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